

2012 결산
불교 문화

미술 전시 '풍성' 음악은 다양성 '부족'



불교미술 전시는 풍년을 맞았다. 서천교 작가는 불상에 현대 조각 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2012년 불교문화계는 현대 예술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는 창작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면서 불교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사진은 KBS국악관현악단의 공연장면.

올해 문화는 전반적으로 미술 전시가 활성화 된 반면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공연은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예술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는 창작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 회화 조각 사진 등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미술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을 찾았다. 개인전 기획전 등 풍성한 전시가 많았던 해다. 개인전으로 신장식 박상희, 서철교, 원진 스님, 임남진, 김석근, 박연희 등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신장식 작가는 불상에 서양회화 기법을 도입 새로운 차원의 불화를 보여주었다. 조각가 서철교 작가 역시 기존 관념적 불상의 모습에 인체의 비례미를 도입해 새로운 불상 조각의 세계를 열었다.

기획전도 눈에 띈다. 조계종 문화부가 기획한 '지혜의 빛' 색으로 전하고 범으로 그리다'展은 기존 당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펼쳐주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하다. 스페이스선+가 주최하는 '연꽃과 부다 Lotus et BOUDDHA'전은 동국대 미대 출신 작가 6인이 프랑스 갤러리89에서 전시회를 갖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김창국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는 "불교 미술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불교 미술이라고 하면 갤러리에서 전시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미술...현대미술과 접목한 다양한 시도
음악...산사 음악회 축소 체질 개선 필요
사찰음식...수행음식 본래 취지 살려야
공연...역사 가미한 작품들 눈길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 불교 회화가 그만큼 대중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했다.

음악 음악=2000년부터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동안 우후죽순처럼 산사음악회가 열렸지만 이제는 특색 있는 음악회들이 자리를 잡아 매년 꾸준히 관객들을 모았다. 하지만 산사음악회 외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많지는 않았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펼쳐졌던 KBS국악관현악단의 '국악, 불교와 춤'은 불교의식을 국악과 접목시켜 색다른 무대를 펼쳤으며, 봉축위와 명법사가 주최한 '보현행원송',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진리의 말씀-범구경', 마음치유와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 '유니 방송'이 개국 5주년 음악회 등을 열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달 도심에서 만나는 풍경소리의 '붓다콘서트'는 찬불가 보급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힐링음반 발매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효리, 루시드 폴, 이루마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한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소중한 만남(Precious Encounter)'을 발매했다. 명상음반 기획사 콘텐츠코리아는 네팔 최고의 국민 가수이자 스님인 아니조인돌마의 베스트셀러 자선앨범 '타인(시간의 강)', 티베트 대나무 피리 연주자 나왕 케축의 명상음악 등을 발매했다. 또한 노래하는 행자 도신 스님의 6집 '처음이에요'도 눈에 띈다. 스님은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12곡을 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교 음악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과거 5년전 산사음악회가 붐을 이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각 사찰들에서 음악회를 2-3회 해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 둘 중단됐다. 이제 대규모 산사음악회를 지양하고 2-3명이 나와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도 연주 할 수 있는 하우스식 소규모 공연을 하다면 비용 부담도 해소할 수 있고 문화포교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사찰음식 그 어느때보다 사찰음식에 대한 열풍이 거셌다. 조계종의 적극적인 사찰 음식 홍보에 힘입어 사찰음식이 곳곳의 행사에 소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템플스테이도 활발하게 진

행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발표회'를 갖는 것은 물론 한국음식 관광축제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WACS Congress 2012 Daejeon)' 등에 참가해 사찰음식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한국사찰음식 나눔캠프-아름다운 인연'은 유학생들에게 사찰 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축제도 주목할 만하다. 진관사의 '마을(村)과 마음(心)'이 어울리는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와 서산 부석사의 '사찰음식 잔치'는 사찰음식을 알리는 문화포교가 됐다. 또한 봉녕사의 '사찰음식 대향연' 역시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찰음식 역시 스님들의 수행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너무 고급화 패셔니화 돼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음식의 진정

수행식이다. 그 본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의견을 밝혔다.

공연 공연 영화 역시 여전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역사와 접목한 공연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0.27 법난을 소재로 한 한국형 뮤지컬 '2015 선객', 부다의 일생을 현대 무용으로 표현한 파사무용단의 '부다 일곱걸음의 꽃', 5.18을 계기로 승려가 된 여산 스님의 이야기 연극 '푸르른 날에' 등이 있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연극 '꿈',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을 주제로 한 뮤지컬 '쌍화벌곡' 등이 모두 역사를 소재로 다룬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승무의 대중화도 눈에 띈다. 한국예술컴퍼니는 춤매는 쌍승무를 선보였고, 무용가 이철진 씨는 화요승무이야기를 통해 상설 공연을 전개 대중들을 모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사진은 '한국사찰음식 나눔캠프' 행사 사진



공연은 다양한 시도가 주목을 끌었다. 무용가 이철진 씨는 승무의 상설 공연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미를 함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소장 법해 스님은 "지금 우리 음식이 너무 인스턴트화 되고 육류가 식단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생활 문화에서 사찰음식의 대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사찰음식이 대중화되면서 패셔니화 고급화 돼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음식은 본래 소박하고 담백하며 맑은 마음으로 만들고 먹는

다. 이밖에도 원당 스님이 극본을 쓴 '지대방'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부명 스님이 새롭게 시도한 '이뻐고' 공연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는 못했으며 문화적 이슈를 낳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넘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음악상 대상에 지휘자 이찬우 씨 수상

공로상 박상진·정부기, 원력상 강형진·이달철



제1회 불교음악상 대상에 이찬우 부산안국선원 지휘자(사진)가 선정됐다. 이에 조계종 문화부는 12월 18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장과 트로피 및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대상 이찬우(정병가 작곡, 부산안국선원 지휘자) △공로상 박상진(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정부기(중앙대 음대 교수) △원력상 강형진(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이달철(한국불교음악인협회 회장) 등이 선정됐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공로상 300만원, 원력상 100만원이다.

이번 불교음악상은 17명의 개인 또는 단체의 후보가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화부장 진명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포교부장 송숙 스님, 찬불작곡가 반영규 씨, 지휘자 박범훈 씨 등이 참여했다.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티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2013년 **마음다이어리**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그릇

2013년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 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입효 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마음다이어리와 함께 2013년 한해 마음의 길 환히 밝혀가길 바랍니다.

●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 470-3118
 ● 현불상 : (02)2004-8213 ·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02)2031-2073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
 ●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 '한 그루의 숲'에서도 판매합니다! http://blog.daum.net/hanjournal (순수하게 클릭!)
 ● 문의 : 한마음저널편집실 (031)470-3180